

## 변화와 자기계발을 통해 새로운 삶의 조건을 모색하는 변화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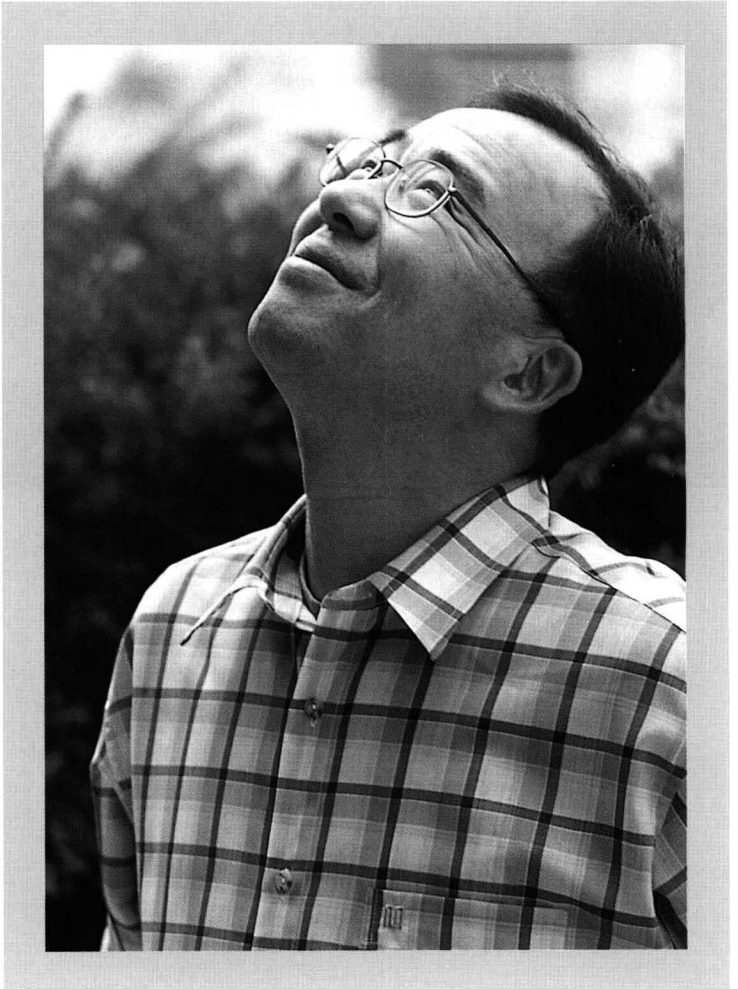
변화경영전문가 구분형 씨(49)는 현재 가장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경영서 전문 저술가로 꼽힌다.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구분형 변화경영연구소 소장'.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펴낸 책은 모두 여덟 권인데 출간될 때마다 독자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직장인을 중심으로 구분형의 책만을 좇아 읽는 마니아 독자층도 꽤 넓게 형성되어 있다.

지금은 출판계 미다스 손으로, 그리고 경제경영 자기계발 분야의 일급 저술가로 인정받지만 그가 처음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소박하다. 그는 변화경영연구소를 내기 전 대기업(한국IBM)의 사원으로 근무했다. 그가 원고를 기획한 것은 사내 경영혁신 팀장으로 있을 때였다.

“직장생활을 15년 정도 했을 때 돌아보니 홀연 마흔이 넘어 있더군요. 무언가 삶에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써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책에 담긴 내용은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업무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했던 것들이에요. 경영혁신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틈틈이 연구하고 기록해 뒀죠. 제 첫 책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그런 조건 속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는 책을 내기 전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경영혁신, 자기계발 분야의 전문가였다. 특히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 Malcolm Baldrige 국가품질경영 모델을 IBM의 단위조직에 적용시키는 국제 심사관으로, 호주 대만 홍콩 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조직들의 경영혁신과 성과를 평가하고 자문하기도 했다.

구분형의 저작들은 여느 경제경영서처럼 투박하거나 거칠지 않고 잘 읽힌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경제와 인문학의 만남을 모색하고 있는 그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나 '낮선 곳에서의 아침' 같은 책제목들은 자못 시적이기까지 하다. 논리정연한 분석과 정확한 경제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글은 철학적인 에세이처럼 고졸한 품미마저 담고 있다.



“글을 쓰다보니까, 나만의 스타일이 찾아지더라고요. 나는 경제경영서가 딱딱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부드럽고 잘 읽히는, 설득력 있는 글을 쓰고 싶었죠. 내면적인 에너지를 자극하는, 인문학적인 감수성이 담긴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 그의 첫 번째 책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부터다. 1998년 초판이 나온 이 책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국가부도의 시기, 상처를 입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부제로 붙어 있는 '대량실업 시대의 자기혁명'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구소장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뿐”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변할 것을 주문했다. 변화만이 살 길이며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적용시

구본형의 명저 밑줄긋기

수많은 욕망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어려운 일이다. 선택은 또한, 다른 것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선택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울려오는 욕망의 목소리에 진솔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본 것을 믿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_\_\_\_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살면서 얻은 깨달음과 공감이 일상적 삶 속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것은 하루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루를 개편하지 않고는 일상적 삶을 바꿀 수 없다. 물리적 현실을 개편하지 못하는 정신은 허망한 꿈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기혁명은 하루 속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시간을 넓혀 가는 것이다.

\_\_\_\_ 《낮선 곳에서의 아침》에서

시장이 나쁘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고, 시장이 좋으면 능력 있는 직원이 기업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노동의 세계는 어제와 다르다. 더 이상 직장인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이 사회는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에게만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부를 제공한다. \_\_\_\_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에서

킬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생존의 길이 보인다는 그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첫 번째 책이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구본형은 1999년 두 번째 책 《낮선 곳에서의 아침》을 펴내게 된다. 시시각각 생존의 조건이 변하는 시대,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한 이 책 역시 독자와 매체 모두에서 고평을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경영서 출판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는다.

“우리나라 경제경영서 출판이 떠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과 보편성을 갖춘 필자의 부족이에요. 값싼 번역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소아병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자기계발, 성공학, 돈벌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느 시대건 일정한 수요를 창출하거든요. 경제경영서 출판은 당위적인 논리에서만 바라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생존,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정말로 필요한 책, 정말로 유용한 정보가 담긴 책을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세 번째 책 《월드 클래스를 향하여》를 펴냈는데 전작 《익숙한 것과의 결별》, 《낮선 곳에서의 아침》이 셀러리맨 개인의 자기혁명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 책은 기업의 ‘내적 경영혁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핵심독자는 ‘혁명’을 결심해야 할 최고경영자들을 포함한 기업의 중역들이다. 이 책은 ‘세계표준(World Wide Standard)에 걸맞는 기업’ 만들기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전문적인 조언을 담고 있지만 구 소장이 생각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는 못했다. 구 소장 역시 이 책을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책으로 꼽았다.

《월드 클래스를 향하여》를 펴낸 직후 구 소장은 20년에 걸친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변화경영연구소를 개설한다. 그가 책 속에서 주장하던 대로 스스로 1인 기업을 실천한 것이다. ‘스스로를 고용’한 뒤 그는 본격적으로 저술 및 강연작업에 나선다. 그리고 《떠남과 만남》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등

연이어 베스트셀러를 펴낸다. 그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거르지 않고 새벽 네 시부터 여섯 시까지 글을 쓴다고 밝혔다. 그 시간을 고집하는 것은 아무도 그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쓸 정도로 시간비용 의식이 투철한 그로서는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으로부터 자신의 생산성을 담보한다.

구본형 소장은 최근 《내가 직업이다》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친구인 은행지점장의 현실적인 고민으로부터 아이টেম을 빌려와 쓴 것이다.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내외적인 조건으로 직업을 잃게 된 사람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인문학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철학적 성찰과 대안이 담긴 글을 쓰는 그에게 여전히 독자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 역시 자신의 책무를 잘 알고 있다. 시절이 어려울수록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법이다. **한**

취재 김도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